

## 중세국어의 ‘이’탈락 명사들에 대하여

황 선 업

### 1.

중세국어에서는<sup>1)</sup> 조사와 통합할 때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명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른바 ‘ㄱ’곡용을 보이는 명사와 말음절이 ‘ㄹ/르’이거나 ‘스/스’인 명사, 혹은 역시 말음이 ‘이’인 명사들이 바로 그러한 명사들이다.<sup>2)</sup> 이러한 비자동적 교체는 그 어형들의 역사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겠으나 15·16세기의 공식적 관점에서는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까닭에 모든 중세국어문법서에서 특이한 것으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문법서에서의 단편적인 언급을 제외하고는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명사들에 대한 개별적이거나 종합적인 검토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떤 부류의 명사들이

---

1) 국어사의 시대구분은 학자들 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기문(1972)의 체계를 따랐다. 또한 이기문(1972)의 시대구분에서 중세국어는 고려시대와 조선전기를 아우르지만 일반적으로 중세국어라면 15·16세기의 국어를 지칭하는 학계의 관행을 따라 15·16세기의 국어를 중세국어라 하였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후기중세국어라 하여야겠지만 이하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중세국어라 하면 15·16세기의 국어를 가리킨다.

2) 기존의 문법서에서는 ‘ㅎ’말음을 가진 명사들도 특수한 곡용을 보이는 예로 다룬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곡용상의 비자동적 교체라 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만 그러한 명사들이 단독형에서는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자동적 교체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어떤 조사들과 통합할 때 특수한 교체의 양상을 보인다는 현상의 기술 외에, 그 현상을 좀더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추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이러한 의도에서 비자동적 교체를 보이는, 말음이 '이'인 명사들을 살펴보려 한다.

2.

중세국어에서 '이' 말음을 가지는 명사 중 일부는 호격이나 속격조사와 통합할 때 말음 '이'가 떨어지는 현상을 보인다.<sup>3)</sup> 그러한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 ㄱ. 그러기 올히는 기리 헤요미 맛당흐니(鵝鴨宜長數) <두초 7: 9ㄱ >  
       ㄴ. 올한 올하 아런 비올하 <악장가사 滿殿春別詞>  
       ㄷ. 물에 우윳 올히 샷기는 어미를 바라서 즈오느다(沙上鳧雛傍母眠) <두초 10: 8ㄴ >
- (2) ㄱ. 李舟는 일홈난 아비와 아둘왜니(李舟名父子) <두초 8: 19ㄱ >  
       ㄴ. 千金을 주리여 處容아바 <악학궤범 處容歌>  
       ㄷ. 아드리 아빈 나해서 곱지곰 사라 <월석 1: 47ㄴ >  
       ㄷ'. 다 아빈게 가 아빈게 널오디(皆詣父所호야 而白父言호디) <법화 2: 138><sup>4)</sup>

위의 예문에서 (1ㄱ)과 (2ㄱ)은 '이'가 탈락하지 않은 어형을 보여 준다. 반면에, (1ㄴ)과 (2ㄴ)은 호격조사 '- 아'가 통합할 때, (1ㄷ)과 (2ㄷ)은 속격조사 '- 이'가 통합할 때<sup>5)</sup> 각 어형에서 '이'가 탈락했음을 볼 수 있다.

---

3) 이하 이러한 명사들을 '이'탈락 명사라 부르기로 한다.  
 4) 여격조사인 '- 이(의)게'는 '- 이(의) 그에'와 같은 통사적 구성이 굳어진 것이므로 결국 속격조사 앞에서 '이'가 탈락한 예로 볼 수 있다.  
 5) 안병희(1968)에서 밝혀졌듯이 속격조사는 평칭의 유정체언에는 '- 이(의)'가 무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러한 '이'탈락이 중세국어에서 발음 '이'를 가지는 모든 명사들에서 보이는 현상은 아니다. 가령 허웅(1975)에서 지적했듯이 '서리, 허리, 우리'와 같은 예에서는 이러한 '이'탈락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탈락이 일어나는 조건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어떤 특징을 가진 명사들이 '이'탈락 현상을 보이는가를 살펴보자. 기존의 연구들은 '이'탈락 명사에 대하여 자세한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몇 예를 들고 간단히 기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허웅(1975)와 이승녕(1981)에서는 이러한 '이'탈락 명사들이 유정명사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그 표면적인 현상만을 포착한 것으로 설명의 묘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탈락 명사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설명은 양주동(1947: 152)에서 찾을 수 있다. 양주동(1947)에서는 '아비, 아바'와 같은 어형을 통하여 '아비'의 원형은 '압'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압' 뒤에 결합한 '이'는 '털'과 '터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접미사로 파악하고 있다. 필자도 이와 같은 생각에 근본적으로 동의한다. 즉 중세국어의 '이'탈락 명사들은 기원적으로는 어간의 발음 '이'가 없는 형태였는데 여기에 접미사 '-이'가 부착됨으로써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났으나 속격과 호격조사에서는 그 기원형이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이'탈락 명사들이 유정명사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던 이유도 명사어간 뒤에 부착되는 접미사 '-이'가 주로 유정체언에 결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찾아질 수 있다. 하지만 접미사 '-이'가 반드시 유정명사에만 붙는 것은 아니다.

---

정체언과 존칭의 유정체언에는 '-시'가 사용된다. '이'탈락 명사들은 '-이(의)'앞에서만 '이'의 탈락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속격조사의 경우 유정체언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호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정체언에 호격조사가 통합하는 일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호격조사와 통합할 때 '이'가 탈락하는 예도 거의 전적으로 유정체언이라 할 수 있다.

(3) 바야미 가칠 머러 즘갯 가재 언즈니 聖孫將興에 嘉祥이 문제시니 <용가 7장>

(3)의 예를 통해 ‘가지’의 경우도 ‘이’탈락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가지’도 기원적으로는 그 형태가 ‘갯’이었으며 접미사 ‘-이’가 부착된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이후의 문헌에서는 ‘가지’에 처격조사가 통합할 경우<sup>6)</sup> ‘가지에’로 나타나며 중세국어 자료 전반을 통해서 이 예를 제외하고는 ‘이’탈락을 보이는 무정명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양주동(1947)에서 제시한 ‘터리’의 경우는 ‘털’이란 어형도 단독형으로 존재하므로 ‘터리’와 같은 어형에서 ‘이’탈락이 일어난 것인지 ‘털’에 ‘-의’가 통합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접미사 ‘-이’가 무정명사와 결합한 예들은 강돈묵(1989)에 정리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 ㄱ. \*설(霜露皆曰率<鷄林類事>)>서리(訓民正音 解例)

ㄴ. ㄹ랏(ㄹ랏, 稵)>가라디>가라지, 도랏(도랏)>도라지, 궁궁>궁궁이, 낫>낫시, 도관>도가니

(47)은 15세기 정음 문헌에서는 모두 ‘서리’로 나오지만 <鷄林類事>의 ‘率’을 볼 때 ‘설’ 정도의 어형을 가졌으리라 추정된 예이다.<sup>7)</sup> (4ㄴ)은 모두 정음 자료에 나타나는 것으로 후대에 접미사 ‘이’가 부착된 어형들이다. 또한, 김형규(1974: 하 206-210)에 따르면 현대방언 자료이기는 하지만 ‘베리(星), 노리(霞), 새미(泉), 입서리(曆), 흘기(土), 병이(瓶)<sup>8)</sup> 등과

6) 앞에서 ‘이’탈락 명사들은 호격 및 속격조사와 통합할 때 ‘이’가 탈락한다고 했는데 ‘가지’는 처격조사와 통합하고 있어서 약간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나 필자는 이들이 모두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될 것이다.

7) 정음 문헌에서 ‘서리’가 처격을 취한 예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형이 ‘서레’와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이다. ‘가지’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서리에’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같이 부정명사에 접미사 ‘-이’가 붙은 예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자료들은 거의 근대국어 시기 이후의 것들이어서 조사와 결합할 때 ‘이’탈락을 보이지 않는다. 접미사 ‘이’가 유정명사와 부정명사에 모두 붙을 수 있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유정명사와 결합하는 속성이 더 강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탈락 명사의 또다른 특징은 그 어간말음 ‘이’가 접미사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탈락 명사들의 음절수는 당연히 2음절 이상이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세국어에서 ‘이’탈락 명사에 속하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다.

- (5) ㄱ. 가히, 두루미, 툫기, 올히, 수리, 곳고리, 머구리, 가야미, 저비, 가치, 고기  
 ㄴ. 아비, 어미, 어버시(어버이), 한아비, 할미, 며느리, 아기, 아즈미, 아자비, 오라비, 노릇바치(노릇바치)-독박취<sup>9)</sup>  
 ㄷ. 령울>너구리, 그럭>그러기, 두텁>두터비, 풀>프리, 부형>부형이, 남상>남상이, 굽병>굽병이, 올창>올창이

(5ㄱ)은 동물에 관한 명사이고 (5ㄴ)은 사람에 관한 명사들로 조사와 통합시 ‘이’탈락을 보이는 것들이어서 말음 ‘이’가 접미사로 생각되는 예들이다. (5ㄷ)은 <訓民正音解例>에서 접미사 ‘-이’가 붙지 않은 어형을 보여 주나 후대 문헌에서는 ‘-이’가 붙은 어형을 보여 주는 것들로 예가 적어 ‘이’탈락 형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으나 그렇더라도 접미사 첨가가 중세국어에서 일어났다면 틀림없이 ‘이’탈락 명사로 쓰였으리라 생각되는 예들이다. 다만 접미사의 첨가는 개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좀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8) 이 예들은 모두 I.P.A.로 적혀있으나 여기서는 한글로 바꾸어 놓았다.

9) ‘독박취’는 <靑丘永言>에 보이는 것이어서 중세국어 자료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나, <翻譯老乞大>와 <老乞大諺解>에 보이는 거의 유일한 예인 ‘노릇바치’와 ‘노릇바치’와 더불어 ‘바치/바지(匠)’의 원래 어형이 ‘빳/빳’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예는 이현희 선생님께서 알려 주셨다.

(5)의 예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속격조사나 호격조사와 통합할 때 ‘이’가 탈락된 어형들을 보인다. 그러나 이들 유정체언은 처격조사 ‘-애/에’와 통합한 예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3)과 같은 예로 본다면 ‘이’탈락명사는 처격조사와 통합할 때도 ‘이’가 탈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탈락 명사들은 속격, 호격, 처격에서만 기원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다른 조사와 통합할 때는 접미사 ‘이’를 가진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두 가지의 다른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첫째는 조사의 음운론적 차이에 따라 ‘이’탈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주격의 {이}와 매개모음<sup>10)</sup>을 가진 이형태가 있는 조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통합할 때는 ‘이’가 있는 어형이 쓰이고 나머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쓰일 때는 ‘이’가 탈락한 어형이 쓰인다고 보는 것이다. 주격의 경우도 ‘이’가 탈락한 어형이 쓰인다고(압+이) 할 수 있지만 다른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한 것은, 아마도 접미사 ‘이’가 기원적으로 주격조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즉 ‘압’에 접미사 ‘이’가 붙어 ‘아비’란 단독형이 만들어진 것은 주격형 ‘아비’에서 연유한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또다른 하나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6)	중세국어	현대국어
	父	田
주격	아비	바시/바치
대격	아비를	바슬/바출
속격	아비	바테/바체/바세(바티/바치/바시)
처격		바테 <sup>12)</sup> /바체/바세

10) 매개모음이란 조사나 어미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통합할 때 ‘으/오’ 이형태를 가지는 경우 그 ‘으/오’를 지칭할 마땅한 말이 없어 쓴 것이지 그것을 조음소로 보는 것은 아니다.

11) 아직 이 문제는 더 연구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

12) 전북 방언에서는 ‘바티’와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6)의 예는 어간말음이 'ㅌ'에서 'ㅅ'이나 'ㅊ'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설명되어 온, 현대국어의 '발'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들과 통합할 때 보이는 어형과 중세국어 '이'탈락 명사 '아비'의 조사 통합형을 비교해 보인 것이다. 현대국어 '발'의 경우 워낙 복잡한 양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주격과 대격에서는 '빳/빔'으로의 어간 재구조화가 상당히 진행된 반면<sup>13)</sup> 속격과 처격에서는 그렇지 않고 기원적인 '발'이 더 잘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이'탈락 명사에서 나타나는 주격·대격과 속격·처격의 어형 차이에서 보이는 현상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날 때 각 격 형태에서 어떤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에 대해 다음의 예도 약간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세국어	현대국어
(7) 安樂國이	선웅이
目連이	선웅이더러, 선웅이에게
目連이드러 <sup>14)</sup>	선웅이는
安樂國이논(安樂國은)	선웅이의
安樂國의	선웅아
目連아	

(7)의 예는 인명 뒤에 붙는 접미사 '이'가 조사와 통합할 때 나타나는 양상을 중세국어와 현대국어로 예시해 본 것이다.<sup>15)</sup> 물론 중세국어에서 '이'탈락을 보이는 명사들에서 그 말음 '이'가 기원적으로는 접미사라

13) 주격에서 보이는 '빳'은 구개음화에 기인한 것이어서 어간의 재구조화라 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구개음화가 공식적 음운현상이 아닌 이상 재구조화라는 용어가 쓰일 수 있을 것이다.

14) '目連이드러'의 경우 '目連이(를) 드러'와 같은 통사적 구성으로 볼 수도 있고, '드러'가 이미 문법화한 것으로 보아 여격조사로 쓰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여격으로 다룬다.

15) 중세국어의 경우 한 인명에 대해 다양한 예를 찾을 수 없어 부득이하게 '安樂國'과 '目連'의 두 예를 같이 들었다.

하더라도 ‘安樂國이’와 같은 인명에 붙은 접미사 ‘이’와 같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간의 재구조화 예로서만 참조하는 것이어서 그들의 성격을 밝히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sup>16)</sup> 중세국어에서는 (7)에서 보이듯이 ‘安樂國이는/安樂國은’과 같이 과도적인 형태도 보이고 속격과 호격에서 ‘이’가 탈락한 어형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현대국어에서는 호격만을 제외하고 모두 어간이 ‘이’를 가지고 있다.<sup>17)</sup> 즉 중세보다 현대에서 어간의 재구조화가 더 진행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명사 어간의 재구조화가 격 형태에 따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의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 듯하다.

이상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이’탈락 명사에 대해 간단히 요약한다면, ‘이’탈락 명사는 기원적으로 접미사 ‘-이’가 부착된 것이며 조사와의 통합시 접미사 ‘-이’가 부착된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가 각기 나타나는 것이라 하겠다. 가령 ‘아비’의 예를 들어 본다면 주격이나 대격 등에서는 ‘아비’라는 형태가, 속격 등에서는 ‘압’이라는 형태가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휘부의 ‘아비’라는 항목에는 ‘아비’와 ‘압’의 두 이형태가 모두 등재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종래에 이런 명사들에 대해 ‘이’탈락이라 설명해 왔던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러기에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해 왔던 ‘이’탈락 현상이 중세국어에는 존재하고 있었다. 아래의 예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 (8) 다르니, 늘그니, 겨므니, 어디니, 큰이, 모드니, -호니(得호니, 病호니), -호리(行호리)

16) 다만 속격과 호격에서 접미사 ‘이’가 탈락한 어형이 쓰인다는 점에서 이 두 접미사가 비슷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겠다.

17) 호격에서만 ‘이’형이 쓰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광호(1986)을 참조할 수 있다. 각 격 형태에서 어간 재구조화가 달리 진행되는 것은 조사의 음운적 속성뿐 아니라 그 격의 형태나 의미적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8)에 보인 예들은 '용언 어간 + 관형사형어미 + 형식명사(이)<sup>18)</sup>'의 구성을 가지는 것들로 이들도 '- 인/의' 등의 속격조사와 통합할 때 형식명사 '이'가 탈락된 어형을 보인다. 이 예들에서 '늘그니, 저므니' 등은 어휘부에 등재된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여 앞에서 '이'탈락 명사에 적용한 것과 같은 설명을 가할 수 있겠으나,<sup>19)</sup> '得흐니, 行흐리' 등은 어휘부에 등재된 단어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간의 재구조화와 같은 설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물론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들도 기원적으로 말음 '이'를 가지지 않았었다는 점이 속격조사와의 통합시 '이'탈락이라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공식적인 기술은 그러한 경우 '이'가 탈락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데 난점이 있는 것이다.

18) 형식명사 '이'는 통사적으로는 그 앞에 단어 경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그 앞의 관형사형어미가 항상 연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형태소 경계로 표시하였다.

19) 이러한 처리에 있어 '늘그니'의 '이'를 접미사로 보아야 하는가, 형식명사이지만 통사적 구성이 한 어휘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늘그니'가 기원적으로는 '늘근'이란 형태에서 온 것이라는 점만을 밝히면 어간의 재구조화가 일어난 것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늘그니'가 기원적으로 '늘근'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이승재(1995)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하다. 이승재(1995)에서는 동명사어미 '-ㄴ, -르'이 관형사형어미로 변화함에 따라 뒤에 'ㄷ'나 '스' 등의 형식명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 논의를 빌리면 행동이나 상태가 아닌 그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나타낼 때의 동명사어미(중세국어 '얼운'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음) 뒤에는 '이'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동명사어미의 기능 변화에 따라 '늘근'과 같은 명사가 '늘그니'로 변화했으나 속격조사와의 통합에서는 기원적인 형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이 글에서는 이전까지 중세국어 문법서에서 특수공용을 보이는 명사들 중의 한 부류로 다루어져 왔던 '이'탈락 명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탈락 유형을 보이는 명사들은 어간의 말음인 '이'를 가지지 않은 형태가 그 명사들의 기원적인 형태이며 역사적으로 '이'가 부착됨으로써 조사와 통합시 다른 형태를 보이게 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명사에 부착되는 접미사 '이'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들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와 명사 어간의 재구조화가 왜 조사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도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이'탈락 명사 중 주어적 속격으로 쓰일 때 '이'탈락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미처 다루지 못하고 말았다. 이 글을 통해 어떤 해결책을 찾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는데 앞으로의 좀더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돈목(1989) 「국어 어형 변화의 통시적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논문.  
고영근(1987)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탑출판사.  
김형규(1974) 『한국방언연구』, 서울대출판부.  
박병채(1994) 『새로 고친 고려가요의 어석연구』, 국학자료원.

- 안병희(1968) 「중세국어 속격어미 ‘-스’에 대하여」, 『이승녕박사송수기념논총』, 을유문화사.
- 안병희·이광호(1990) 『중세국어문법론』, 학연사.
- 양주동(1947) 『여요전주』, 을유문화사.
- 이광호(1986) 「미지의 ‘이’를 찾아서」, 『국문학논총』 5, 국민대어학연구소.
- 이승녕(1981) 『중세국어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재(1995) 「동명사어미의 역사적 연구」, 『국어사와 차자표기』, 서울 : 태학사.
- 조세용(1994) 『중세국어문법론』, 건국대학교출판부.
- 최범훈(1990) 『한국어발달사』, 경운출판사.
- 허 응(1975) 『우리옛말본』, 샘문화사.
- 허 응(1989) 『16세기 우리옛말본』, 샘문화사.